

## 초등 학교의 로마자 인명 표기 교육에 대한 제언

김 혜 숙  
(건양대학교)

**Kim, Hye-Sook. (2001). Suggestions for the romanization education of personal names in primary school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7(2), 129-145.**

This paper compares the four official romanization systems (1948, 1959, 1984 and 2000) and analyzes the third- and fourth-year primary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teacher's guides in terms of romanization of personal names. This study is conducted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inconsistent use of romanization is due to two major causes, i.e., the frequent changes of the formal romanization systems and the exclusion of the romanization system from the school curriculum. The current third- and fourth-year primary school English text books (Ministry of Education, 2001) are chosen for the analysis because they are the first primary school English textbooks to be implemented based o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e study found that the textbooks and teacher's guides did not state which romanization system they were following and were not consistent in romanizing personal names. This study suggests including the current official romanization system in the current primary school curriculum and outlines a strategy for teaching the romanization system which suits the curriculum.

### 1.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 사람들의 로마자 인명 표기는 통일성 없이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3,300 명의 여권 소지자의 로마자 인명 표기를 조사한 김세중(2001)에 의하면, '정'씨는 Chung, Chong, Jung, Cheong, Jeong, Joung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으며, '곽'씨는 Kwak, Kwag, Gwak, Kwack, Gwag, Koak 등 그 표기의 수가 무려 69가지나 된다. 또한 한 개인도 자신의 인명을 하나의 표기로 적지 않고 일관성 없이 여러 표기로 바꾸어 적는 경우가 많다. *영어영문학*(1991년~2000년)에 10년 동안 논문을 두 번 이상 게재

제한 96명의 로마자 인명 표기를 조사한 결과, 43.5%나 되는 42명의 게재자들이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로마자 표기로 인명을 적고 있었다(김혜숙, 2001). 철자를 바꾸어 적은 사람은 42명 중에서 4명(9.5%)으로 적었으나, 성과 이름의 순서를 바꿔 적은 사람은 18명(18.8%), 그리고 이름의 표기 양상을 다르게 쓴 사람은 33명(78.6%)이나 되었다. 즉 이름을 표기하는 데 있어, 두 이름자를 띄었다가 붙이기도 하며, 붙여 쓸 경우 붙임표(-)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또 붙임표를 넣을 경우 두 번째 이름자를 대문자와 소문자로 바꾸어 시작하기도 하기도 한다. 인명 표기를 하는 데 있어, 철자, 성과 이름의 순서 및 이름의 표기 양상 등을 일관성 없이 표기하면, 아무리 사소한 차이라도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 로마자 인명 표기를 통일성 없이 가지각색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또 개인에 따라서도 로마자 인명 표기를 일관성 없이 다른 표기로 적고 있는 것일까? 이는 잦은 로마자 표기법의 교체,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제외된 로마자 표기법의 교육, 일반인의 무관심, 그리고 한 언어를 다른 표기 체제로 표기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표기법 자체의 문제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김혜숙, 2000; 양병선, 2000; 정경일, 2001 참조).

본고는 다양한 로마자 인명 표기의 여러 원인 중에서 잦은 로마자 표기법의 교체 및 정규 교육 과정에서 로마자 표기법의 교육이 제외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초등학교에서의 로마자 인명 표기 교육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즉, 로마자 표기법 및 이에 따른 로마자 인명 표기를 초등학교 정규 영어 교육 과정에 넣어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면, 지금과 같은 인명 표기의 혼란은 감소하리라고 본다. 본고는 네 차례에 걸쳐 바뀐 역대 공식 로마자 표기법의 변천을 살펴보고, 2001년 1학기부터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쓰기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의 영어 교육 과정 및 학생용 영어 교과서와 교사용 영어 지도서에 표기된 로마자 인명 표기를 분석한 후, 초등학교의 로마자 인명 표기 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우리나라의 역대 공식 로마자 표기법

우리에게는 2000년 7월에 공시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포함한 네 차례의 공식 표기법(1948, 1959, 1984, 2000)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표기법의 잦은 교체는 로마자 표기 교육의 부재와 함께 로마자 표기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다음은 네 차례에 걸친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특징 및 인명 표기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의 로마자 표기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1948년 및 1959년 표기법은 김민수(1984)의 ‘자료’에 수록된 “한글을 로오마자로 적는 법” 및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참조하였으며, 1984년 표기법은 최태영(1989)의 부록 III에 실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그리고 2000년 표기법은 국립국어연구원(2000)에 실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전문”을 참조하였다.

역대 표기법에서의 쟁점은 정희원(1997)에서도 지적되었듯이, (1) 전사법과 전자법<sup>1)</sup>의 문제, (2) 모음 ‘ㄱ’, ‘ㄴ’, ‘ㄹ’의 표기 문제, 그리고 (3) 파열음(‘ㄱ’, ‘ㄴ’, ‘ㄷ’, ‘ㄹ’, ‘ㄷ’, ‘ㄷ’, ‘ㄷ’, ‘ㄷ’)과 파찰음(‘ㄱ’, ‘ㄷ’, ‘ㄷ’)의 표기 문제 등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다음은 위의 세 항목을 네 차례에 걸친 역대 공식 표기법들이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표기법에서 인명 표기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 1.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 (문교부, 1948)

### 1) 전사법과 전자법의 혼용

1948년 문교부 표기법은 전사법과 전자법을 혼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립’ *Toknip*에서 앞의 *Tok*은 글자를 따라 쓴 전자법, 그리고 뒤의 *nip*은 소리나는 대로 적은 전사법이라고 볼 수 있다.

### 2) ‘ㄱ’, ‘ㄴ’, ‘ㄹ’

‘ㄱ’와 ‘ㄴ’은 반달표(˘)를 사용하여 각각 *ō*와 *ū*로 적고 있으며, ‘ㄹ’은 *ai*로 표기하고 있다. 이중 모음 ‘ㄱ’, ‘ㄴ’, ‘ㄹ’ 및 ‘ㄹ’, ‘ㄹ’은 각각 *yō*, *wō*, *ūi* 및 *yai*, *wai*로 적고 있다. 네 개의 공식 표기법 중에서 1948년 표기법만 ‘ㄹ’을 *ai*로 적고 있다. 다른 세 표기법에서는 모두 *ae*로 적는다.

### 3) 파열음(‘ㄱ’, ‘ㄴ’, ‘ㄷ’, ‘ㄷ’, ‘ㄷ’, ‘ㄷ’, ‘ㄷ’)과 파찰음(‘ㄱ’, ‘ㄷ’, ‘ㄷ’)

유·무성음을 구분하여, ‘ㄱ’, ‘ㄷ’, ‘ㄷ’, ‘ㄷ’이 무성음이면 *k*, *t*, *p*, *ch*로, 유성음이면 *g*, *d*, *b*, *j*로 적는다. ‘ㄱ’, ‘ㄷ’, ‘ㄷ’, ‘ㄷ’은 *kh*, *th*, *ph*, *chh*로 표기하고 있으나, 어깨점(˙)을 쓴 *k*, *t*, *p*, *ch*도 허용하고 있다. 경음 ‘ㄱ’, ‘ㄷ’, ‘ㄷ’, ‘ㄷ’은 *gg*, *dd*, *bb*, *ss*, *dch*로 적고 있다.

### 4) 인명 표기

인명 표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단지 ‘세척’ 부분에서 ‘박’씨가 예로 사용되

1) 전사법(transcription)은 국어의 소리를 로마자로 표기(예: 속리산 *Songnisan*)하는 것이고, 전자법(transliteration)은 국어의 글자를 로마자로 표기(예: 속리산 *Soglisán*)하는 것이다.

고 있을 뿐이다(예: 박(朴) Pak, 박과 Pak *kwā*, 박은 Pak *ūn*, 박이 Pak *i*, 박에게 Pak *ege*, 박을 Pak *ūr*).

## 2.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문교부, 1959)

### 1) 전자법

일 음운 일 기호의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표기의 기본 원칙에 명시하고 있다(예: ‘값’ *gabs*, ‘둑’ *gug*, ‘젊다’ *jeolmda*).

### 2) ‘ㄱ’, ‘ㄴ’, ‘ㅁ’

‘ㄱ’, ‘ㄴ’은 반달표(˘)를 사용하지 않고 이중자 *eo*, *eu*로 적고 있으며, ‘ㅁ’은 *ae*로 적는다. 이중 모음 ‘ㄱ’, ‘ㄴ’, ‘ㄴ’ 및 ‘ㅁ’과 ‘ㅁ’은 각각 *yeo*, *weo*, *eui* 및 *yae*, *wae*로 적고 있다.

### 3) 파열음(‘ㄱ’, ‘ㄴ’, ‘ㄷ’, ‘ㄹ’, ‘ㄷ’, ‘ㄷ’, ‘ㄷ’, ‘ㅁ’, ‘ㅁ’)과 파찰음(‘ㄷ’, ‘ㄷ’, ‘ㄷ’)

1948년도 표기법이 유·무성음을 구별한데 비해, 1959년 표기법에서는 유·무성음의 구별 없이 ‘ㄱ’, ‘ㄷ’, ‘ㄷ’, ‘ㄷ’는 *g*, *d*, *b*, *j*로 그리고 ‘ㄱ’, ‘ㄷ’, ‘ㅁ’, ‘ㄷ’는 *k*, *t*, *p*, *ch*로 한글 표기의 특성을 살려 적고 있다. ‘ㄱ’, ‘ㄷ’, ‘ㅁ’, ‘ㄷ’, ‘ㄷ’는 유성음을 겹쳐 *gg*, *dd*, *bb*, *ss*, *jj*로 표기한다.

### 4) 인명 표기

1948년 표기법과 마찬가지로 1959년 표기법도 인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1948년도 표기법에서는 ‘박’씨 성이 예로 사용되었으나, 1959년도 표기법에서는 인명이 예로도 사용되지 않아 인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교부, 1984)

### 1) 전자법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예: ‘신라’ *Shilla*, ‘부엌문’ *puŏngmun*).

## 2) ‘ㄷ’, ‘ㄴ’, ‘ㅁ’

‘ㄷ’, ‘ㄴ’은 1948년 표기법처럼 반달표(˘)를 사용하여 *ǒ, ǔ*로 적고 있으며, ‘ㅁ’은 *ae*로 적는다. 이중 모음 ‘ㄷ’, ‘ㄴ’ 및 ‘ㅁ’과 ‘ㅂ’은 각각 *yǒ, wo, ūi* 및 *yae, wae*로 적고 있다. 1948년도 표기법과 다른 점은 1984년 표기법에서는 ‘ㅁ’이 *ai* 대신 *ae*로 표기되고, ‘ㄴ’은 반달표(˘) 없이 *wo*로 표기된다는 점이다.

## 3) 파열음(‘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ㅃ’)과 파찰음(‘ㅈ’, ‘ㅉ’, ‘ㅊ’)

1948년 표기법과 마찬가지로, 유·무성음을 구분하여 ‘ㄱ’, ‘ㄷ’, ‘ㅌ’, ‘ㅈ’이 무성음이면 *k, t, p, ch*로, 유성음이면 *g, d, b, j*로 적는다. ‘ㅋ’, ‘ㅌ’, ‘ㅊ’, ‘ㅉ’은 어깨점(˙)을 사용하여 *k', t', p', ch*로 적고 있는 점도 1948년 표기법과 같다. 그러나 유성음을 겹쳐 경음을 표기하는 1948년 표기법과는 달리, 1984년 표기법은 무성음을 겹쳐 ‘ㄲ’, ‘ㄸ’, ‘ㅃ’을 각각 *kk, tt, pp*로 표기한다. ‘ㅉ’은 1948년의 *dch* 대신 *tch*로 적고 있다. 1948년도 표기법과 또 다른 점은 ‘ㅅ’의 표기이다. 1984년도 표기에서는 ‘ㅅ’의 경우 *sh*로 적고 그 외는 *s*로 적고 있어, *s*로만 표기하고 있는 다른 세 표기법과 대별된다.

## 4) 인명 표기

앞의 두 표기법에서는 인명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반해, 1984년 표기법에서는 처음으로 인명 표기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제3장 4항에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되 띄어쓰고, 이름 사이에는 ‘-’(짧은 줄표)를 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예: 김정호 Kim Chǒng-ho). 그러나 한자식 이름이 아닌 경우는 ‘-’을 생략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예: 한하나 Han Hana). 이순신 Yi Sun-shin과 이승만 Syngman Rhee처럼 갑자기 변경할 수 없는 관습적으로 굳은 표기는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장 7항). 그리고 제3장 2항에 ‘-’ 앞뒤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두고 있다(예: 김복남 Kim Pok-nam).

##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부, 2000)

## 1) 전사법

1984년 문교부 표기법과 마찬가지로 2000년 현행 문화부 표기법 제1장 1항에서도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예: ‘신라’ *Silla*, ‘왕십리’ *Wangsimni*).

## 2) ‘ㄱ’, ‘-’, ‘ㅁ’

2000년도의 표기법은 다시 1959년도의 표기법으로 돌아가, 모음 표기에 반달표(˘)를 쓰지 않고 대신 이중자를 쓰고 있다. 단모음 ‘ㄱ’, ‘-’, ‘ㅁ’는 *eo, eu, ae*로 적고 있으며, 이중 모음 ‘ㄱ’, ‘ㄴ’, ‘ㄷ’ 및 ‘ㅁ’와 ‘ㅂ’는 각각 *yeo, wo, eui* 및 *yaе, naе*로 적고 있다. 1959년도와 유일하게 다른 모음 표기는 ‘ㄴ’로 1959년도의 *weo* 대신 2000년도 표기법에서는 *wo*로 쓰고 있다.

## 3) 파열음(‘ㄱ’, ‘ㄴ’, ‘ㄷ’, ‘ㄹ’, ‘ㄷ’, ‘ㅂ’, ‘ㅃ’, ‘ㅆ’)과 파찰음(‘ㄷ’, ‘ㅌ’, ‘ㅈ’)

1959년 표기법과 마찬가지로 2000년 표기법은 유·무성음을 구별하지 않고, ‘ㄱ’, ‘ㄷ’, ‘ㅂ’, ‘ㅌ’를 *g, d, b, j* 한가지로 표기하고 있다. ‘ㄷ’, ‘ㅌ’, ‘ㅆ’는 어깨점(˙) 없이 *k, t, p, ch*로 적고 있다. 1959년 표기와 다른 점은 경음 ‘ㄴ’, ‘ㄷ’, ‘ㅃ’의 표기이다. 1959년 표기법에서는 유성음을 겹쳐 썼으나, 2000년 표기법에서는 무성음을 겹친 *kk, tt, pp*를 쓰고 있다. 그러나 ‘ㅆ’은 1959년이나 2000년 모두 *jj*를 쓰고 있다.

## 4) 인명 표기

2000년 표기법도 인명 표기에 대해 제3장 4항 및 7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는 것은 1984년도와 같으나, 이름을 붙여쓰는 것(예: 민용하 Min Yongha)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이름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1984년 표기(예: Min Yong-ha)도 허용하고, 관례적으로 굳은 표기도 쓸 수 있다고 하여, 사실상 2000년 인명 표기법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름 내의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예: 한복남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표기법에 따른 철자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철자 간의 격차가 커서,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는 항목을 제3장 4항에 두고 있다.

## 5. 기타 표기법

우리나라의 양대 영자 신문인 코리아헤럴드(*The Korea Herald*)와 코리아타임즈(*The Korean Times*)는 서로 다른 철자를 쓰고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기’를 예로 들면, 2001년 5월부터 현행 표기법(2000)을 따르고 있는 코리아헤럴드는 *Gyeonggi*로, 그리고 현행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코리아타임즈는 *Kyonggi*로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경기 지역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두 표기를 같은 지명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은 이 두 표기를 서로 다른 지명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인명 표기는 두 신문 모두 1984년 표기 방식에 따라, 성과 이름 순서로 표기하며, 두 이름자 사이에 붙임표를 넣는다(예: 김대중 Kim Dae-jung). 철자는 어떤 한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고 개인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표기하고 있다.

*Time*, *Newsweek*, *The Washington Post* 등 미국 시사지 및 일간지는 두 이름자를 따로 떼어 표기하고 있다(예: Kim Dae Jung)<sup>2)</sup>. 철자는 어느 한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 6. 요약

반달표(˘)와 어깨점(ˊ)의 사용 및 유·무성음을 구별하는 점에 있어서 1948년과 1984년 표기법이 비슷하고, *eo*와 *eu*의 사용 및 유·무성음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1959년과 2000년 표기법이 비슷하다. 즉, 특수 부호를 쓴 정부 최초의 공식 표기법(1948)에서 이중자를 쓰는 1959년 표기법으로, 다시 특수 부호를 쓰는 1984년 표기법으로, 그리고 또 다시 이중자를 쓰는 현행 2000년 표기법으로 널뛰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로마자 표기법이 바뀌어 왔다.

그러나 국어의 소리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는 전사법과 국어의 철자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는 전자법에 따라 이들 표기법을 나누면, 분류 방식이 달라진다. 1948년 표기법은 전사법과 전자법을 혼용하고 있고, 1959년 표기법은 전사법, 그리고 1984년 및 2000년 표기법은 전자법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959년 표기법과 1984년·2000년 표기법 양 극 사이에 1948년 표기법이 있는 셈이다. 사실, 국어와 다른 음운 체계를 가진 언어를 표기하는 로마자로 국어를 표기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전자법을 따르는 1959년 표기법은 한글 표기로 복원시키는데 편리하고, 전사법을 따르는 1984년과 2000년 표기법은 발음하는데 편리한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식 표기법의 잦은 교체는 여러 표기를 일관성 없이 바꾸어 써도 괜찮다는 인식을 일반 대중이 갖게 하는 데 한 몫 한다고 볼 수 있다. ‘강원’의 경우, 표기법이 바뀔 때마다 Kangwŏn(‘48)→Gangweon(‘59)→Kangwon(‘84)→Gangwon(‘00)으로 바뀌었다. 이름의 표기 양식도 두 이름자 사이에 붙임표를 넣었다가(예: Han Bok-nam) 현재는 붙임표 없이 두 이름자를 붙여쓰는 방식(예: Han Boknam)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로마자 인명 표기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표 1은 네 차례의 정부 공식안이 전사법과 전자법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고 있는지를 예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표 2와 표 3은 쟁점이 되고 있는 로마자 표기의 모음과 자음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표 4는 역대 공식 로마자 표기법의 인명 표기에 관한 사항을 적은 것이다.

2) 그 외 세계 각국의 영문 일간지, 시사지, 통신들의 이름의 표기 양상은 김혜숙(1998, 2000) 참조.

**표 1**  
전사법과 전자법

표기법	전사법/전자법	예
1948년	전사법과 전자법의 혼용	독립 Toknip
1959년	전자법	값 gabs, 국 gug, 젊다 jeolmda
1984년	전사법	신라 Shilla, 부역문 puǒngmun
2000년	전사법	신라 Silla, 왕십리 Wangsimni

**표 2**  
역대 공식 인명 표기법에 따른 모음 표기

표기법	ㄱ	ㅡ	ㅏ	ㅑ	ㅓ	ㅕ	ㅗ	ㅛ
1948	ǒ	ǔ	ai	yǒ	yai	wai	wǒ	ǔi
1959	eo	eu	ae	yeo	yae	wae	weo	eui
1984	ǒ	ǔ	ae	yǒ	yae	wae	wo	ǔi
2000	eo	eu	ae	yeo	yae	wae	wo	eui

네 표기 모두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는 모음으로는 ‘ㅏ’ a, ‘ㅑ’ o, ‘ㅓ’ u, ‘ㅕ’ i, ‘ㅓ’ e, ‘ㅛ’ oe, ‘ㅑ’ ui, ‘ㅗ’ ya, ‘ㅛ’ yo, ‘ㅓ’ yu, ‘ㅕ’ ye, ‘ㅓ’ na, ‘ㅛ’ ne가 있다.

**표 3**  
역대 공식 인명 표기법에 따른 자음 표기

표기법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ㅑ	ㅓ	ㅕ	ㅗ	ㅛ	
1948	k,g	gg	kh (k')	t,d	dd	th (t')	p,b	bb	ph (p')	ch,j	dch	chh (ch')	s
1959	g	gg	k	d	dd	t	b	bb	p	j	jj	ch	s
1984	k,g	kk	k'	t,d	tt	t'	p,b	pp	p'	ch,j	tch	ch'	s,sh
2000	g	kk	k	d	tt	t	b	pp	p	j	jj	ch	s

네 표기법이 동일하게 표기하는 자음으로는 ‘ㅑ’ ss, ‘ㅓ’ h, ‘ㅕ’ n, ‘ㅗ’ m, ‘ㅛ’ ng, ‘ㅑ’ r,l이 있다.



**표 4**  
**역대 공식 인명 표기**

표기법	표기 순서 및 양상	예
1948년	① 인명 표기에 대한 언급 없음 ② 예로 박(朴)을 인용함	② 박(朴) Pak, 박과 Pak <i>kwá</i> , 박은 Pak <i>ŭn</i> , 박이 Pak <i>i</i> , 박에게 Pak <i>ege</i> , 박을 Pak <i>ŭr</i>
1959년	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1984년	① Sn Gn-gn(3장 4항) ② 비한자식이름의 경우 Sn Gngn 허용(3장 4항) ③ 관습적인 표기 허용(3장 7항) ④ ‘-’ 앞뒤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은 표기에 미반영(3장 2항)	① Kim Chông-ho ② Han Hana ③ Yi Sun-shin, Syngman Rhee ④ Kim Pok-nam
2000년	① Sn Gngn 원칙(3장 4항) ② Sn Gn-gn 허용(3장 4항) ③ 그동안 써오던 표기 허용(3장 7항) ④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미반영(3장 4항) ⑤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함(3장 4항)	① Min Yongha ② Min Yong-ha ④ Han Boknam Hong Bitna

Sn(Surname): 첫 로마자를 대문자로 표기한 성 (예: Kim)

Gn(Given name): 첫 로마자를 대문자로 표기한 이름자 (예: Chông)

gn(given name): 첫 로마자를 소문자로 표기한 이름자 (예: ho)

### III. 3·4학년 초등 영어 교과서 및 지도서의 로마자 인명 표기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로마자 표기의 주요 원인으로 앞서 살펴 본 공식 로마자 표기법의 잦은 교체와 로마자 표기 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다. III장에서는 2001년 1학기부터 제7차 교육 과정에 의거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에 초점을 맞춰, 3·4학년의 학생용 영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교육부, 2001)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 인명 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여러 종류의 교과서 중에서 택일하였던 것과는 달리,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1종 도서로 보급되었다.

#### 1. 3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인명 표기

##### 1) 학생용 교과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머리말 다음 쪽에 “함께 공부할 친구들”이란 제목하에 그

림으로 소개되어 있다. 6명의 사람과 1명의 우주인이 “나는 미나.,” “나는 민수야.,” “안녕? 나는 토니아.,” “나는 줄리.,” “안녕? 나는 리사야.,” “나는 토머스야.,” “나는 지토예요!”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 이름은 미나, 민수 등 두 개, 영미 이름은 토니, 줄리, 리사 및 토머스 등 네 개인데, 국적에 상관없이 인명이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지토는 우주선을 타고 온 친구의 이름이다. 3학년 교과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로마자로 표기된 인명은 제1과의 제목 속에 포함된 Minsu이다. 3학년 교과서는 각 과의 제목을 영어로 표기하고 있는데, 제1과의 제목이 “Hello, I’m Minsu”인 것이다. Minsu는 두 이름자를 붙임표 없이 붙여 쓴 현행 표기법의 Gngn 표기 양상을 따르고 있으며, 철자 또한 현행법에 맞다. 그러나 Minsu는 사실 네 공식 표기법 중 어느 표기법을 따라도 같은 철자가 된다(표 2 및 표 3 참조).

**표 5**  
3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이름 표기

	한글 표기	로마자 표기
한국 인명	미나, 민수	한국 인명 Minsu
영미 인명	토니, 줄리, 리사, 토머스	
비인명 이름	지토	

## 2) 교사용 지도서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에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교사용 지도서에는 인명이 로마자로 표기되고 있다. 학생용 교과서에 나오는 7개의 이름 외에, 지도서에는 보충 설명 등에 이름이 18개가 더 등장하여 25개의 이름이 있다. 표 6는 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로마자 인명 표기를 열거한 것이다. 별표(\*)는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에 맞지 않은 표기를 표시한 것이다.

**표 6**  
3학년 영어 지도서에 나타난 로마자 이름 표기

한국 인명	Mina, Minsu, Sumi, Kiho, Mijin, Suhyeon, Hyeontae, Jun, Minju, Minho, Mongryong, Sim Cheong, Heungbu, Kongjiwi
*한국 인명	*Jiyoung, *Shim Cheong
영미 인명	Julie, Tony, Thomas, Lisa, Sandy, Susan, Sue, Susie, John Fitzgerald Kennedy (John F. Kennedy)
비인명 이름	Zeeto

표 6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은 성 없이 이름만 표기되어 있는데, 한국 이름 15개 모두 현행법의 Gngn 표기 양상에 맞추어 쓰고 있다. 그러나 철자는 현행법을 모두 따르고 있지 않다. ‘지영’ Jiyoung의 ‘영’이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yeong*이나,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영’과 가깝게 발음되는 영어 단어 *young*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심청’은 동일한 면(65쪽)에 두 개의 다른 철자로 적혀 있어 혼동을 초래한다. 왼쪽 난에는 Shim Cheong으로 표기되고, 오른쪽 난에는 Sim Cheong으로 표기되어 있다. *Shim*은 1984년 표기법에 맞는 표기이고, *Cheong*은 2000년 표기법에 맞는 표기이다. 여기서도 공식 표기법의 교체에 따른 흔적이 보인다.

## 2. 4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인명 표기

### 1) 학생용 교과서

3학년 교과서에서는 “함께 공부할 친구들”의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데 반해, 4학년 교과서에서는 이들 이름이 모두 로마자로 바뀌어 Minsu, Mina, Julie, Tony, Thomas, Lisa 및 Zeeto로 표기되어 있다. 즉 4학년 교과서에서는 “I’m Mina,” “I’m Minsu,” “I’m Julie,” “I’m Tony,” “I’m Thomas,” “I’m Lisa” 및 “Hi, everyone. I’m Zeeto” 등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3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4학년 교과서에도 한국 인명인 Minsu와 Mina 모두 현행 표기법의 Gngn의 표기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철자 또한 현행 표기법에 맞는다. 그러나 ‘민수’와 ‘미나’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네 개의 공식 표기법 중 어떤 표기법에 따라도 같은 철자로 표기되므로, 표기 문제의 소지가 없는 이름을 일부러 선택한 것 같아 보인다.

**표 7**  
4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이름 표기

한국 인명	Minsu, Mina
영미 인명	Julie, Tony, Thomas, Lisa
비인명 이름	Zeeto

### 2) 교사용 지도서

4학년 교사용 지도서에는 학생용 교과서에 나오는 7개의 이름 외에 21개의 이름이 더 등장하여 28개의 이름이 있다. 다음은 4학년 지도서에 나오는 이름을 열거한 것이다. 별표(\*)는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에 맞지 않은 표기를 표시한 것이다.

**표 8**  
**4학년 영어 지도서에 나타난 로마자 이름 표기**

한국 인명	Mina, Minsu, Minho, Sumi, Kiho, Seho, Nari, Lee Sunsini, King Sejong, Heungbu, Sim Cheong, Kim Minsu
*한국 인명	*Chiyoung, *Shim Cheong, *Youngsu
영미 인명	Julie, Anne, Lisa, Thomas, Mr. White, Tony, Eric, Melanie, Santa, Ms. Green, Mrs. Brown
비인명 이름	Zeeto, Toto, Arf

성과 이름이 함께 표기된 인명(예: Kim Minsu, Lee Sunsini)이 4학년 영어 지도서에 처음 소개되었는데, 성-이름의 순서가 현행 표기법과 부합된다. 이순신은 관례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Yi Sunshin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비해, 교사용 지도서에는 Lee Sunsini으로 이름이 현행 표기법에 따라 적은 것이 특색 있다.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고 현행 표기법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Lee의 철자를 논외로 하면, Sunsini은 현행 표기법의 Gngn 양상 및 철자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은 현행 표기법에 따라 적으면 *yeong*인데, 3학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4학년 교과서에도 현행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영어 단어인 *young*으로 표기(예: Chiyoung, Youngsu)되어 있다. 그리고 ‘지영’의 ‘ㅈ’이 현행 표기법의 *j* 대신 *ch*로 표기되고 있다. 그런데 3학년 지도서에서는 ‘ㅈ’이 *j*로 표기되어, 3·4학년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 3학년 지도서와 마찬가지로, 4학년 지도서에도 동일한 면(137쪽)에 ‘심청’이 두 다른 표기로 적혀 있다. 왼쪽 난에는 Shim Cheong, 오른쪽 난에는 Sim Cheong으로 적혀 있어 혼동을 초래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14명의 한국 인명은 모두 현행법의 Gngn 표기 양상을 취하고 있으나, 철자는 현행법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있어 체계적인 계획하에 로마자 표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IV. 초등 영어 교육 과정 및 이에 따른 로마자 표기 교육

##### 1.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 영어 교육 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초등 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 해설”(〈총론〉 제1장)에는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이 수록되어 있다(교육부, 2001). 이에 따르면 초등 학교 영어 교육은 듣기·말하기의 음성 언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자 언어 교육은 쉽고 간단한 내용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정도에 머물

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 영어 교육 과정에는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보다 먼저 도입된다. 음성 언어 교육 중에서는 듣기가 말하기보다 먼저 시작되며, 문자 언어 교육 중에서는 읽기가 쓰기보다 먼저 시작된다. 다시 말해,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순으로 영어 교육이 추진되며, 이들 네 기능이 일정 기간이 지나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학년별 영어 교육도 이 순서를 따르고 있다.

3학년 때는 듣기와 말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읽기와 쓰기는 교육 과정에 들어 있지 않다. 4학년 때는 듣기, 말하기 외에 읽기가 추가된다. 처음으로 문자 언어가 도입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도 문자 공부를 최소화시켜, 알파벳 대·소문자의 인지와 낱말을 따라서 읽는 정도에 그친다.

5학년부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이 때의 쓰기는 아주 초보적 수준으로 인쇄체 대·소문자 쓰기, 낱말 쓰기 정도이다. 낱말 쓰기도 구두로 익힌 낱말을 베껴 쓴다거나 외워 쓰기도 하고,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이에 대응하는 낱말을 쓰는 수준이다. 심화과정에서는 들은 낱말을 받아 쓰기도 하고, 컴퓨터 자판에서 구두로 익힌 낱말을 치기도 한다.

6학년 때는 5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인쇄체 대문자와 소문자 쓰기 및 구두점(마침표, 물음표 등)을 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심화 과정에서는 예시문을 참고하여, 실물이나 그림을 한 문장으로 묘사하거나, 쉽고 간단한 생일 카드, 감사 카드 등을 쓰게 한다.

요약하면 초등 학교 영어 교육은 듣기·말하기 중심의 교육이며, 읽기·쓰기는 약화 되어 있다. 단계별로 보면 3학년 때는 듣기와 말하기를, 4학년 때는 듣기·말하기·읽기를, 그리고 5학년과 6학년 때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 2. 초등 영어 교육 과정에 따른 로마자 표기 교육

현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일학년 학생 456명의 로마자 표기 실태를 조사한 정경일(2001)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혼자서 로마자 표기를 터득했다고 하는 사람이 59.4%로 가장 많았다. 로마자 표기를 혼자 터득했다고 한 사람이 많은 것은 로마자 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응답자 가운데 82.1%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거나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고 답해,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채로 응답자들이 로마자 표기를 해오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로마자 인명 표기가 통일성과 일관성 없이 가지각색으로 쓰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로마자 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경일(2001)에 따르면, 적은 수(12.6%)이기는 하나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 로마자 표기를 배웠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중학교 때 배웠다는 응답자가 45.1%로 가장 많았다. 이는 현 대학교 일학년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처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시기<sup>3)</sup>와 맞물려 있음을 알려준다. 현재 초등 학교에서는 영어를 처음 배우는 시점이

3학년인 만큼, 바로 3학년이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자신의 인명 표기를 배울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쓰기 시작한 인명의 철자 표기를 바꾸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일(2001)의 조사에 의하면, 73.7%나 되는 대다수가 인명의 로마자 표기를 바꾼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43.5%나 되는 사람들이 인명 표기를 바꾸어 쓰고 있다고 조사한 김혜숙(2001)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 상반된 결과는 아마도 학생 응답자들이 이름의 표기 양상 또는 성-이름의 순서를 바꿔 쓰는 것은 로마자 표기를 바꾸어 적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철자를 바꾼 경우에만 인명 표기를 바꾼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혜숙(2001)에서도 철자를 바꾼 사람은 9.5%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의 표기 양상과 성-이름의 순서는 빈번하게 바꾸어도, 한 번 쓰기 시작한 철자를 잘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철자를 잘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인명 표기를 처음 쓰는 시기에 철자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초등 영어 교육 과정에 따라 로마자 표기 교육을 단계별로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 가를 요약한 것이다.

초등 학교 영어 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듣기·말하기의 음성 언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문자 언어 교육은 쉽고 간단한 내용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3학년 때는 문자 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3학년 교과서의 과 제목 및 소제목 등을 제외한 본문 대부분의 설명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영어로 표기된 것은 ‘차례’에 여덟 개의 과 제목<sup>4)</sup>과 본문에 나오는 8개의 지시문이다. 지시문은 영어와 한글이 병기되어 있다(예: *Look and Listen* “보면서 들어 봅시다.”, *Listen and Repeat* “따라 말해 봅시다.”, *Let’s Chant* “챌트로 배워 봅시다.”, *Look and Speak* “그림을 보면서 말해 봅시다.”, *Let’s Sing* “노래를 불러 봅시다.”, *Let’s Role-play* “역할놀이를 해봅시다.”, *Let’s Review*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Let’s Play*<sup>5)</sup> “공던지기놀이를 해 봅시다.”).

3) 영어가 초등 학교 정규 과정에 도입된 것은 1997년도 3학년부부터이므로, 지금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초등 학교에서 영어를 정규 과목으로 배우지 않았다.

4) 여덟 개 과의 제목은 “Hello, I’m Minsu”, “What’s This?”, “Happy Birthday!”, “Wash Your Hands”, “I Like Apples”, “How Many Cows?”, “I Can Swim”, “It’s Snowing”이다.

5) *Let’s Play*는 일 대 일로 대응되는 다른 지시문과는 달리, 놀이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24개의 우리말 표현이 병기되어 있다. *Let’s Play*에 대응되는 그 외의 우리말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인사놀이를 해봅시다.” “카드잡기놀이를 해봅시다.” “물건 알아맞히기 놀이를 해 봅시다.”, “물건 추측하기 놀이를 해 봅시다.” “선물모으기놀이를 해 봅시다.” “선물 주머니 돌리기 놀이를 해 봅시다.” “선물 주고받기 놀이를 해 봅시다.” “코코코놀이를 해 봅시다.” “동작 알아맞히기 놀이를 해 봅시다.” “말 전하기 놀이를 해 봅시다.” “가위바위보놀이를 해 봅시다.” “음식알아맞히기 놀이를 해 봅시다.” “좋아하는 음식 조사 놀이를 해 봅시다.” “책을 만들어 발표해 봅시다.” “동물 카드 놀이를 해 봅시다.” “동물 색칠하기 놀이를 해 봅시다.” “동물 조사 놀이를 해 봅시다.” “추측하기놀이를 해 봅시다.” “동작 전달하기 놀이를 해 봅시다.” “말판놀이를 해 봅시다.” “웃입히기놀이를 해 봅시다.” “카드 전달하

이처럼 3학년 때의 교육 목표가 말하기·듣기에 있고, 교과서에서 접할 수 있는 영어 표기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사는 각 학생들의 인명을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해주어 학생들이 본인의 로마자 인명 표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그친다.

본인 인명 표기에 덧붙여 교사, 가족, 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로마자 인명 표기를 가르쳐 주는 시기는 읽기 교육이 처음 도입되는 4학년 때가 적당하다. 4학년 때도 문자 공부를 최소화시켜, 알파벳 대·소문자의 인지와 낱말을 따라서 읽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의 로마자 인명 표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그친다.

좀 더 본격적인 로마자 표기 공부는 쓰기가 시작되는 5학년이 적당하다. 이때의 쓰기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인쇄체 대·소문자 쓰기, 구두로 익힌 낱말을 베껴 쓰기, 사물 또는 그림을 보고 이에 대응하는 낱말 쓰기 정도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문화 유산(예: 한글 *hangeul*, 다보탑 *Dabotap*, 덕수궁 *Deoksugung* 등), 명절(예: 추석 *Chuseok*, 단오 *Dano* 등) 또는 지명(예: 서울 *Seoul*, 대전 *Daejeon*, 충남 *Chungnam* 등)을 그림을 보고 베껴 쓰게 하거나 좀 더 나아가 그림에 대응하는 낱말을 쓰게 하면, 학생들이 로마자 표기법에 한층 익숙해 질 수 있을 것이다.

6학년에서는 쉽고 간단한 낱말 및 어구나 문장까지 쓰는 단계이다. 6학년 때는 쉽고 간단한 생일 카드, 감사 카드 등을 쓰는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축하 또는 감사해야 할 가족, 선생님, 반 친구의 이름을 쓰게 한다. 6학년 때는 가까운 사람들의 인명 표기 쓰기와 함께 전체적인 로마자 표기법을 가르쳐 줄 시기이다. 초등 학교에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6학년까지 로마자 표기를 공부하게 되면, 지금처럼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이 가지각색으로 표기되는 로마자 인명의 혼란스러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표 9는 단계적인 로마자 표기 교육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초등 영어 교육 과정에 따른 단계별 로마자 표기 교육

학년	교육 과정	로마자 인명 표기 교육 안
3학년	듣기, 말하기	학생 본인의 로마자 인명 표기 적어주기
4학년	듣기, 말하기, 읽기	가족, 교사, 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로마자 인명 표기 적어주기
5학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 유산(예: 한글 <i>hangeul</i> , 다보탑 <i>Dabotap</i> , 덕수궁 <i>Deoksugung</i> 등), 명절(예: 추석 <i>Chuseok</i> , 단오 <i>Dano</i> 등) 또는 지명(예: 서울 <i>Seoul</i> , 대전 <i>Daejeon</i> , 충남 <i>Chungnam</i> 등)을 그림을 보고 베껴 쓰기 또는 그림에 대응하는 낱말을 쓰기
6학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가족, 교사, 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인명을 로마자로 쓰기, 전체적인 로마자 표기법 배우기

기 놀이를 해 봅시다.” “주사위놀이를 해 봅시다.”

## V. 맺음말

현행 초등 학교 교육 과정에는 일반적인 로마자 표기법은 물론 로마자 인명 표기법에 대한 규정 사항이 없다. 2001년 1학기부터 제7차 교육 과정을 처음으로 따른 3·4학년 교과서 및 지도서들 살펴본 결과, 두 이름자를 붙여 쓰는 Gngn 표기 양상은 현행법을 따르고 있지만 철자는 현행법을 따르고 있지 않는 사례가 많아, 교과서에 나오는 인명 표기가 2000년 표기법을 엄두에 두고 표기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철자가 많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3·4학년 지도서 모두에 ‘심청’이 Shim Cheong과 Sim Cheong으로 같은 면에 서로 다르게 적혀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인명 표기를 일관성 없이 써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사람들이 일단 한 번 정한 인명 표기의 철자를 잘 바꾸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생각해 볼 때(김혜숙, 2001; 정경일, 2001), 자신의 이름을 처음 로마자로 표기시 제대로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로마자 표기 교육은 현재 영어 교육이 시작되는 초등 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본다. 즉, 학생들이 로마자 표기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표기하거나 아니면 표기법을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로마자 인명 표기를 알게 해서는 안되고, 로마자 표기법을 초등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학교에서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인명 표기를 배우게 해야 한다. 초등 학교 3학년 때 본인의 로마자 인명 표기를 가르쳐주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초등 영어 교육 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6학년 끝날 때까지 전체적인 로마자 표기를 가르쳐 주면, 지금까지 각양각색으로 혼란스럽게 표기되고 있는 로마자 표기 실태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01). *초등 학교 영어 3*.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 교육부. (2001). *초등 학교 영어 4*.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 교육부. (2001). *초등 학교 영어 3 Teacher's Guide*.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 교육부. (2001). *초등 학교 영어 4 Teacher's Guide*.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 국립국어연구원. (2000).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화관광부.
- 김민수. (1984). *국어정책론*. 서울: 탑출판사.
- 김세중. (2001). 성씨의 로마자 표기 시안. *성씨의 로마자 표기 공개 토론회*. 국립국어연구원, 29-34.
- 김혜숙. (1998). 한국 인명의 로마자 표기 순서 및 표기 양상. *사회언어학* 6, 89-111.
- 김혜숙. (2000). 주요 로마자 표기법에 입각한 한국인의 성 표기 문제점: 영어에 근거한 발음 및 의미. *사회언어학* 8, 415-443.
- 김혜숙. (2001). 한국인의 로마자 인명 표기 현황 및 일관성: *영어영문학*(1991-2000) 계



- 제자를 대상으로. *2001년 8월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한국영어영문학회.
- 양병선. (2000). 한국 인명 로마자 표기법 연구: 음절 단위 국어의 영자 표기법. *언어학* 8, 281-302.
- 정경일. (200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인식과 교육 실태. *이중언어학* 18, 303-322.
- 정희원. (1997). 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 비교. *새국어생활*, 7(2), 27-43.
- 최태영. (1989). *한글 맞춤법 강해*. 송실대학교 출판부.

김 혜 숙  
건양대학교 외국어문학부 영어영문전공  
320-800 충남 논산시 내동 26  
Tel: (041) 730-5163  
Fax: (041) 736-4077  
Email: hskim@konyang.ac.kr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anuary, 2002